일모다부 일모일부

(요3:6-13)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모다부 일모일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일모다부는 한자로 쓰지 않았습니다만 짐작을 하실 겁니다, 한 어머니에 여러 명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일모일부는 한 어머니에 한 아버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부모님은 일모다부(一母多父)라는 이야깁니다.
어? 나는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일모다부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일모일부 아래서 살고 있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가리키는 바를 말하자면, 일모(一母)라고 할 때의 모(母)는 내 육체를 말합니다, 내 육체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육체를 뱃속에 잉태했다가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는 내 육체라는 얘깁니다.
내 육체의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겉을 낳았지 속을 낳았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어머니는 내 몸을 낳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를 나로서 구체적으로 '나'라는 의식의 내용을 갖게 해주는 '너'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오해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니까 그냥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혈육관계에서 어머니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나'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화제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거듭남입니다.
즉 거듭나야 될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체는 어머니가 낳으셨지만, 거듭나야 될 '나'는 내 육체가 낳은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체가 왜 나의 어머니인가?
진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아기로 낳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로 낳으신 겁니다, 마음을 낳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육체 안에 넣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아직 '나'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언제 '나'라는 의식이 생겨서 인격이 됩니까?
바로 '너'를 만날 때입니다.
그 '너'가 어머니이니까 나는 아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너'가 아버지이니까 나는 아들이 되고, 그 '너'가 형이면 내가 동생이 되는 것이고, 그

‘너’가 선생님이면 나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너’가 제자면 나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체적으로 ‘나’ 되게 해주는 것은 ‘너’입니다.
따라서 ‘너’가 나를 ‘나’ 되게 해주는 것이고 실지로 ‘나’를 낳아주는 거예요.

자, 새댁이 아이를 가졌어요, 10개월 동안 가졌다가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난 순간에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새댁이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가 엄마를 낳았습니다, 새댁이 엄마가 되게 하는 게 아기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가 아닌 임산부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아기가 새댁을 엄마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도 새댁을 엄마로 낳는다는 얘기에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이 나를 선생으로 낳아준 겁니다.
제자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너’의 자리에 나라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낳아줍니다.
내가 남편입니까? 그러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낳아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너’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마주보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으니까 ‘너’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의 어머니에요.
어머니인 내 육체가 아내를 만날 때는 아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남편으로 낳아줍니다.
내 어머니인 내 육체가 내 자식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아버지로 낳아줍니다.
내 어머니인 육체가 제자들을 만나면 그 제자들이 아버지가 돼서 나를 선생으로 낳아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며 ‘나’로 태어는 겁니다.
그 수많은 ‘너’를 만나면서 수많은 내용의 ‘나’로 채워져 가는데, 그 수많은 ‘너’를 누가 만나는가 하면 바로 이 육체로 만나게 됩니다.
육체가 선생을 만나면 나는 제자로 낳아지는 것이고, 육체가 부모를 만나면 나는 자식으로 낳아지는 것이고, 육체가 남편을 만나면 나는 아내로 낳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얘깁니다.
내 육체가 나의 어머니에요.
이 어머니가 이런 '너'를 만나면 이런 '나'가 나오고, 저런 '너'를 만나면 저런 '나'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육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듭남이 주제인데, 거듭나야 될 '나'를 말하면서 육체로 난 '나'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육체가 없다면 내 마음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마는, 이 세상에 있는 '너'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용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의 내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만나야 남편이 되고, 자식을 만나야 부모가 되고, 선생을 만나야 제자가 되고… 하는데, 육체가 없으므로 그 '너'를 못 만나니까 '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 몸이 만나주는 '너'와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나'로 아직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님이 몸 대신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땅을 몸으로 만난 것처럼 천국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천국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나'가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머니가 돼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서 '나'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리에 서시면서.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육체가 내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너'들이 아버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쪽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끌고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아버지만을 '너'의 자리에 세우고 '나'가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한 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자, 한 '너'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하고만 관계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한분만을 '너'로서 관계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너'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너'의 자리에서 우리와 관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창조주가 되시면, 나는 내용이 피조물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지만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듣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하신 대로 듣고 행하는 관계, 하나님아버지가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면 나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목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시면 나는 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로 채워지고 '나'가 된 이게 바로 거듭난 자라는 얘깁니다.
그 외에는 아무하고도 이 땅에서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늘을 현실로 느낄 수가 있고, 그 현실로 느껴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너'로서 관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처럼 나타나시면 나는 종이 되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시면 나는 아들로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양으로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 되시면 나는 지혜를 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동안 거듭나기 전에 이 땅에서 관계를 맺던 모든 관계의 대상들, '너'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너'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이제는 미션의 대상이 됩니다.
미션의 대상은 나를 '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대상만이 나를 '나' 되게 해줍니다.

거듭났다고 여겨져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스파이를 보내서 그 나라의 고위층의 여자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오게 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접근했다가, 그만 정보를 빼내기 위한 스파이로서의 미션을 잊어버리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배반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에서 거듭났다고 여겨져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 등,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이쪽과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다는 얘깁니다.
이제 내 자식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것은 미션이에요, 미션.
나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상황이 관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나는 자식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식에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내게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내에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이 육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는 인격이 어떻게 육체가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그들에게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인격이 육체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 내 몸이 '나'라는 인격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수많은 '너'를 아버지로 만나면서 '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만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에 의해서 '나'가 마치 노예들에게 불로 지져서 낙인을 하는 것처럼, 자식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라는 각인을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깊이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깊이 새겨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에 의해서 '나'가 규정되었을 때, 육체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 인격의 성분이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관계에서 내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움직임은 전부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의해서 반응하고, 휩쓸려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마찬가지로 그 인격의 성분을 보니까 영성으로 차있다는 얘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인격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육체성으로 그 인격의 체질이 구성되어 있다면, 거듭난 뒤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의 '너'이신 하나님을 관계하므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영성으로만 체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성으로 체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다 영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뜻이고,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의 대상들 때문에 생겼을 때에 내 인격의 성분은 완전히 육체라는 겁니다.
내 인격이 육체를 어머니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너'를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내 인격의 성분은 육체성이 되고,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로서 만나서 내가 될 때 그 '나'라는 인격은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므로 그 체질이 영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까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육체로 난 것으로 육체로 살던 내

가 영으로 난 것으로서 영이 되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던 자가 영으로 나서 영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가를 말씀해주는 거라 이거지요.

일모다부의 삶에서 일모일부의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가 어머니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너’를 만나는 동안 그 ‘너’들이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육체성으로 이루어진 인격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어머니가 돼주셔서 하나님을 ‘너’로 만나므로, 하나님만이 나를 규정짓는 아버지가 되는 거듭남의 축복된 삶이 오늘 하루도 경험되고 확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